독생자 효과

(요1:14-18)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독생자 효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독생자 효과'
독생자 효과라고 그러면,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계 신문들에 나온 뉴스 중 GS 그룹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GS건설의 회장이 허 창수 회장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경영이 좀 어려워지면서 일대 경영혁신을 꾀하게 되는데, 그 경영혁신 담당 상무로 33살 약관의 회장 허 창수 씨의 외아들인 허 윤홍 씨를 상무로 승진을 시켰다고 하는 내용이 기사로 실린 것을 봤습니다.
33살의 GS그룹의 주력 기업인 GS 건설의 경영혁신 담당 상무가 됐어요.
이게 외아들이에요, 이게 독생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고 파워입니다.
독생자는 아니라도 아들로서는 외아들이지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아들인 이재용 씨.
지금 40대 중반인데 정말 삼성그룹의 근간이 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애플과 특허소송 때문

에 싸우는 바람에 온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삼성전자의 회장 아닙니까?
그 이건희 회장님이 회장 취임 2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내를 보이게 됩니다.
이재용 씨가 회장 자리를 잘 맡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이재용 씨의 능력이 그만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지는 못한 거 같아요, 매스컴 앞에서.

이런 모습과 좀 비교되는 모습이 있어요.
빌 게이츠, 자녀가 셋입니다, 근데 빌 게이츠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61조에요.
이건희 씨의 개인재산이 10조 안팎인줄 알고 있어요.
61조인데, 이미 28조를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위에 딸이 있고 아래로 아들이 둘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각각 100억씩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100억씩 만.
좀 다르죠? 느낌이.
이재용 씨는 누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딸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물려받았고, 앞으로 그룹의 회장 자리를 넘겨주기를 원하는 속마음이 비춰지고, 또 GS 그룹의 외아들에게는 뭐 외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넘기고 싶겠지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그냥 일부, 그 전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부분만을 떼어 준다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에게 주실까요?
빌 게이츠가 자식들에게 61조 재산 중에서, 600 분의 1이나 될까요? 그 100억씩 준다고 하는 그런 식일까요, 아니면 여러 자식이 있지만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런 식 일까요?
뭐 이재용 씨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에 속하는 회사나 뭐 신라호텔 이런 것들을.
아니면 GS건설의 회장님이 외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듯이 그런 것일까요?
우린 독생자는 아니니까 GS 건설에서처럼 그런 독생자 대우를 받기는 어렵지요.
그럼 여러 아들 중에 있으면 이재용 씨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해 주실까요?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식들한테 해 주는 것처럼 해 줄까요.

우리가 자식 됨의 포지션이 뭡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몇 째 아들입니까? 베드로가 차남일까요? 그러면 뭐 야고보와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한 4남정도 되나?
그러면 저는 한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저는 그러면 뭐 한… 60억 번째 자녀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몇 번째 자녀에요?
그리고 뭐 받습니까? 아아, 궁금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GS 그룹의 외아들도 아니고, 삼성그룹의 외아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빌 게이츠의 자녀들같이 그렇게 취급 받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래가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러면 어떤 식의 관계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공간이 있기 전에, 지금도 그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 지내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도 아버지와 아들로 지내십니다.
하나님께 독생자는 예수님뿐이십니다.
근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하여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이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 됨에서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하고 계셨고 이 땅에 내려 오셨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 마음이 얹어지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고 떨어져 버리고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우리의 자녀 됨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취급해서 마음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대상은, 창조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섭리자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절대주권자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자녀를 향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있는 동안만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보내시는 모~든 것들은 독생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바람에, 독생자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독생자는 아닌데, 독생자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요한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우리는 독생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생자는 아닌데, 독생자가 받는 모든 것을 다 받는데, 그 독생자가 받는 것을 독생자 아닌 자들이 받을 때, 그걸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됨은, 예수님과 분리되면서 끝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독생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십니다.
그 사랑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넘쳐 납니다.
그 넘쳐 나는 것들을 예수님과 붙어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다 받는데, 그 받는 사랑의 질, 사랑의 내용들이 다 독생자라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묘하지 않아요, 이게?
빌 게이츠처럼 여러 자식이 있어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여러 자식을 따로따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을 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대로 나한테 다 온다는 겁니다.
아~! 신비한 거예요.
이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이야기 합니다, '영광을 보니'
요한에게 있어서 이 본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너희 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끝났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사건을 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고는 보이는 게 없을 때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대에 배우가 있을 때, 조명이 비취면 옆의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무대에 있는 그 배우에게만 조명이 비취면서 배우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식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사업도 안 보이고, 내 몸도 안 보이고, 내 목숨도 안 보이는 상태,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이는 그 상태, 이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게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문제 해결 해 주세요, 형통하게 해 주세요, 믿음을 잘 갖게 해 주세요, 뭐 이런 막연한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독생자의 영광을 보냐? 내 마음이 볼 게 많은데.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 세상 것들을 마음에 관심하고 보게 되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독생자에게만 조명이 비춰서 내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하여 갖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이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됨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걸 잊어버리고 나면 무슨 수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돌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에게 독생자로서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자! GS 건설의 외아들에게는 지금 33살 밖에 안 되는데 상무자리를 줬습니다, 아버지가.
또 외아들 이재용 씨에게는,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라는 세계굴지의 회사를 줬습니다, 사장자리 하라고.
그리고 빌 게이츠는 자기 아들들에게 100억씩 주겠다고, 자식들에게 어리니까 아직. 100억씩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부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뭘 하나님이 주실까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들이 다 나한테로 오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돈을 주실까요? 예수님에게 돈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 뭘 주실까요? 기업을 주실까요?
이 지구 위에 있는 어느 하나의 기업을 예수님이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 그러면 큰일 났네.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 또 예수님에게 뭐 성공? 대통령자리 같은 높은 관직을 주실까?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관직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독생자인데.
그럼 뭐 세상이 좋다는 건 예수님께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뭘 주시는 걸까? 이 은혜라는 내용이 뭘까? 도대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은혜라는 게 뭐에요? 여러분.
은혜가,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은혜라는 말도 되지만 그 자체로 기쁨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건 내 빈 마음을 채워줌으로써 기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기뻐질 수 있는 게.
그게 뭘까요?
하나님아버지가 독생자에게 주실 수 있는 건 하나 밖에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기업이 필요한 것도, 관직이 필요한 것도,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건강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예수님 안으로 충만하게 임해가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이게 성령님을 통한 교통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가득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하나님.
아버지하나님이 예수님 밖에 계신데, 예수님 안에 충만해 계신 아버지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하나님 밖에 계신데,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안에 가득히 차 계신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뭘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읽으면 알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는 그 표시가 뭐냐 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독생자인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연합해서, 그 분의 영광을 보면서, 그 분만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 줬다'라고 하는 말과 비교를 합니다.
자, 이거 비교하면 명확해 지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해줄 때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선민 바깥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민 앞에다가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주가 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 때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이, 밖에서 율법을 앞에 제시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애인을 만날 때 우리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할머니가 손자를 볼 때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서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만족과 그 기쁨은, 안 해본 사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GS 그룹의 상무가 되는 그 외아들이 부럽지 않고,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되는 그 아들 됨이 부럽지 않고, 빌 게이츠의 아들 딸 됨이 부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타나는 일이 그런 거라는 얘기에요.

율법을 주실 때와는 다르게, 밖에서 율법을 제시했는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원이 없어지는 상태를 경험해 보세요.
진짜! 이 마음에 만족과 기쁨으로 아~무 것도 소원이 안 생기고, 바라는 게 안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될 때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이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밖에 계시고, 율법은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진리라는 건 뭡니까? 이상한 거예요.
율법이 제시 됐을 때는, 마음에는 딴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듯이 그 율법을 받들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서 당신의 생각을 바라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얼마나 쫀득쫀득하게 내 마음에 달라붙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을 때와는 다르게 끌리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꿀 송이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받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배불러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까 세상에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 될 때에, 그 뜻이 옛날에 율법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내 마음의 살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너무 너무 좋고, 그 말씀을 행하고 싶고, 그 말씀을 갖고 싶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상태, 이게 바로 진리가 충만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내 마음의 관심과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사랑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더러운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져야 될 그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서 죽어야 주님과 연합하게 되고, 주님이 독생자로서 받으시는 모든 것들이 내게로 넘쳐올 수가 있는 거지요.

여전히 내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먼저 좋아하고 깊이 깊이 관여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대하시는 그 모든 관계에서의 사랑을 내게로 넘쳐 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독생자 효과!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The only and one effect'
'The only and one'이라고 영어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The only son effect'

독생자 효과!
단 하루를 살아도 이 독생자의 효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오직 조명을 받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럼으로써 독생자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천국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